

## 색채로 만드는 도시이미지

기억에 오래 남는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다. 울창한 숲, 강, 호수들과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가하면 오래된 건축물들이 뿜어내는 비장함으로 인해 잊을 수 없는 도시들도 있다. 북적이는 광장과 노천카페, 예쁜 상점의 쇼윈도, 마음껏 흐트러져 여유 있는 분수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은 조각품들, 심지어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옷차림으로 인해 인상에 남는 도시들이 있다. 도시의 이미지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여러 구성요소를 조정하고 디자인하여 한 장면의 조화로운 경관을 이루어내야 함과 동시에 인상에 남을만한 특색 있는 리듬감을 연출해야한다는 점에서 도시는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되는 거대한 협주곡에 비유될 수 있다.

도시구성물의 형태와 재료 색채가 짜임새 있게 조화될 때 도시는 정돈된 질서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는 이들 세 요소가 어우러져 정돈된 시각적 이미지를 연출하는 예를 찾기 힘들다. 특히 색채에 의해 망가뜨려지는 도시경관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도시에는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있으며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한다. 큰 면적의 것들과 작은 것들이 있으며 늘 그 자리에서 있는 것들과 움직이는 것들이 존재한다. 공원과 광장이 있고 건축물과 간판이 있다. 사람과 자동차가 있으며 분수 조형물이 있고 가로등, 공중전화부스, 벤치, 휴지통 등이 있다. 이들 다양한 구성요소의 색채가 질서를 유지하면서 리듬감이 살아있는 완벽한 화음을 이룰 때 도시는 완성도 높은 개성 있는 이미지로 연출될 수 있다.

## 1. 도시의 색채 현황

최근 우리의 디자인 수준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도시경관은 지나치게 많은 요소들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 무질서하고 시각적으로 너무 시끄럽다. 건물, 간판, 가로시설물, 도로구조물의 색채는 자기 과시적이며 때로는 선정적이기까지 하다. 잘 짜여진 이야기처럼 가로에는 시각적 문맥이 존재해야 하는데 우리의 거리에는 문맥이 없으며 당연히 즐거리도 없다. 지역마다 독자적인 색채디자인 전략으로 도시를 표현할 즐거리를 찾아야 하며 거리마다 흐르는 이야기의 문맥을 만들어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가야 한다.



- 도시 환경 색채 현황 : 도시경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디자인 방법에 있어 「무절제」 혹은 「지나친 단순함」과 「무관심」이 공존하고 있다.

그림 1

## 2. 도시의 이미지 만들기

도시경관에 통일감 있는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각적으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들

의 형태와 색채가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정돈되어야한다.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건물형태와 그 지역에 가장 친근한 기조색(基調色)을 찾아내어 가로구성에 일관성 있게 적용함에 의해 그 지역의 고유이미지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려는 의지 없이 강하게 튀어나와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 색채는 보다 낮은 색조로 조정되어야하며 경관을 혼란시키는 원색의 간판과 건물 측벽에 그려진 과도한 표현의 슈퍼그래픽은 제거되어야 한다. 건물벽면은 돌이나 벽돌, 나무, 회벽 등을 재료로 사용하여 벽면재료 그 자체를 외부 색으로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시각적으로 편안하다. 벽면에 페인트도장을 하는 것은 외장치장의 가장 값싼 방법으로 건물의 무미건조하고 못생긴 표정을 단순히 페인트도장의 화려한 화장만으로 가릴 수 있다는 인식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건축물들이 도시의 배경이 되어 기본 음색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도시경관에 감칠맛 나는 재미와 즐거움을 부여하는 리듬감 조성의 몫은 환경조형물과 도시시설물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움직이는 조각물과 빛을 이용한 분수와 인공폭포, 도시의 크고 작은 광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조형물들, 도시의 액센트가 되는 공중전화부스와 우체통, 시시때때로 축제분위기를 연출하는 화려한 깃발과 배너, 그리고 맨홀뚜껑 보도의 포장패턴, 작은 휴지통의 디자인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에 의해 도시는 지루하지 않고 활기에 넘친 이미지를 갖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림 2

- 스페인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 : 행위 예술가들의 퍼포먼스는 거리의 볼거리와 재미의 요소로 제공된다.



그림 3

- 스페인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 : 쇼윈도의 평범한 제품에도, 가판대의 꽃의 배열에도 멋스러운 감각이 배어나온다.



그림 4

- 일본 도쿄 롯본기힐즈 : 예술품으로 가로 전체를 갤러리화한 가로로 완벽한 수준의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 3. 색채로 기억되는 도시들

#### 1) 배경이 되는 도시 : 프랑스 파리

파리는 눈에 띄는 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건축물들의 색



채가 옅은 갈색으로 서로 통일되어 안정감 있고 정돈된 도시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자칫 무미건조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각기 다른 색조의 강약을 적용한 건축물들에 의해 세련된 조화미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림 5

- 프랑스 파리의 시가지 전경 : 도시 전체의 색채가 통일되어 도시의 고유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의 건축물들은 거리의 배경이 되고 있다. 간판은 무채색으로 갈색의 건축물 벽체와 일체화되어 자연스럽고 편안한 가로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간판을 보고 상점을 기억하지 않으며 모든 구성물들이 조화로운 이 거리를 격조와 품위를 갖춘 이미지로 기억하게 된다.



그림 6

-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 : 건물도 간판도 배경이 되어 자연스럽고 편안한 가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가로등과 신호등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설치되었어도 기존 도시경관의 고유한 이미지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그림 7

- 프랑스 파리의 가로시설물 :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되어 간결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파리 북동쪽에 위치한 몽마르뜨 언덕은 19세기 파리의 예술가와 문인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곳으로 지금은 무명화가들이 몰려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려 팔고 있다. 파리는 건물과 간판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도시 속에 녹아있는 시민들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열정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와 아름다운 도시이다.



그림 8

- 프랑스파리의 몽마르뜨 언덕 : 배경이 되는 건축물과 간판들 사이에 화가들의 다양한 예술작품들로 화려하고 아름답다.

2) 다양한 색채의 볼거리가 있는 도시 :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천재 건축가의 개성 있는 건축물 기행만으로도 볼거리가 풍부한 도시이다. 이곳은 건축물로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어 가우디의 천재성이 바르셀로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성있는 건축물들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에 성당은 1882년 착공했으나 1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건축되고 있다. 하늘로 치솟은 모양을 한 4개의 기둥 종탑부분에는 선인장의 꽃을 형상화하여 다채로운 색으로 장식되어 있다.

가우디가 설계한 다른 건축물처럼 바르셀로나 그라시아 거리에 위치한 카사바트로도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며 스페인의 화려함을 더해준다. 창문의 살이 뼈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곡선을 이룬 외형이 감탄을 자아내며, 벽면에는 흰색의 원형 도판을 붙여 초록색·황색·청색 등의 유리 모자이크를 가미하여 화려한 색채를 보여준다. 아침 해가 비추면 이 건물은 마치 지중해의 파도 속에 떠다니는 해초와 작은 동물들을 연상케 한다.

지중해와 바르셀로나 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구엘 공원은 공원이라기보다는 마치 동화 속 나라에 들어온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가우디는 자연과 조형의 교감을 추구하여 덩굴 식물과 타라고나 지방의 마른 돌멩이가 건축자재로 사용되어 재료 자체 그대로의 색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9

- 사그라다 파밀리에 : 거대한 옥수수 모양의 기둥 4개가 하늘로 치솟은 모양을 한 파격적인 건축물



그림 10

- 카사바트로 : 색유리의 파편과 원형타일로 마감되어, 햇빛을 받으면 다채로운 색으로 찬란하게 빛난다.



그림 11

- 구엘공원 : 가우디 특유의 형형색색 모자이크로 장식된 건물과 자연이 어우러져 초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



### 3) 상징색이 있는 도시 : 영국 런던

1910년대부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시작으로 빨간색을 거리의 시설물들에 적용하고 있다. 빨간색은 주요간선 도로의 편의 시설물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런던하면 빨간색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방문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최근 빨간색의 시설물에 검정색이나 파란색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웨스트민스터 시티 빅토리아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공중전화 부스가 설치되고 있다. 또한, 새로 건립된 런던시청의 외관에 파란색을 적용함으로써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시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림 12

- 런던의 도시색 - 상징색인 빨간색을 전화부스, 우체통, 관광버스에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 4) 도시 기능을 색채로 그린 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는 자연 환경색과 조화되는 옅은 갈색을 주조색채로 추출하여 주거단지들에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색채에 의해 통일감 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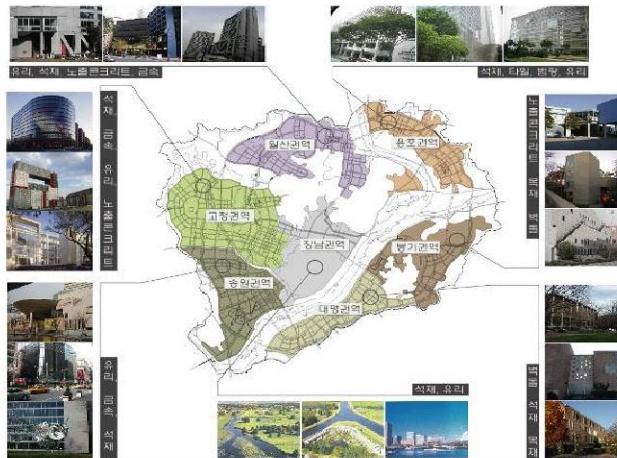


그림 13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통일된 도시이미지 색 : 전체 주거단지에 주거유형별로 통일된 색채를 적용하여 도시이미지를 만들었다.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이러한 기초색은 환상형 구도를 따라 분포하도록 적용 하였는데, 저밀주거, 중·저밀주거, 중밀주거, 고밀주거별로 색조를 각기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변화감을 연출하였다. 이때, 공원인접지역, 구릉지에 위치하는 저밀주거에는 연한색조를, 시각적 회랑부가 되는 부분의 중·저밀형은 상대적으로 진한색조를 고밀형(도시형)에는 하단부를 중심으로 재료에 의한 강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7개 경관권역별 도시시설물에 개성 있는 색채를 적용함으로써 역동적인 변화감을 창출하고 각 도시 기능별 다양한 색채적용으로 개성 있는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 ■ 권역별 재료 적용 예시

그림 14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색채는 통합된 이미지를 목표로 기획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은 도시민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가치를 드높이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도시의 이미지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되며 여기에 시민들의 디자인에 대한 높은 안목과 도시의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이 더하여질 때 완성되는 결과물인 것이다. 거리의 조각품들이 오가는 도시민들에게 농담을 거는 도시 거리 곳곳에서 환경조형물들이 목청껏 노래하는 도시 우리의 도시의 색채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완성된 협주곡이어야 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1. 건축의 색 · 도시의 색, 기문당, 1996
2. 낭만이 있는 도시 색깔이 있는 문화, 도전과 응전, 2003

##### -연구 및 보고서-

1. 서울 색 정립 및 체계화 연구보고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008
2.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관7대전략과제 도시환경색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7